

##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네트워크 구축 동향

주혜원, 이은재 (3705-6245)

- [이슈] 최근 HSBC 주도로 개발된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인 ‘Voltron’이 국내 은행권에도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증가
  - 지난 3/12일, HSBC는 Voltron의 네트워크 및 기술을 활용한 무역금융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내 시중은행들에도 관심과 동참을 독려
- [동향] 해외 대형은행들은 Voltron 을 비롯한 유망한 컨소시엄들에 각자 편입하여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며, 향후 플랫폼을 통해 △승인 및 결제 절차 자동화 △처리기간 단축 △보안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
  - 글로벌 주요은행들은 R3의 Voltron, Marco Polo 외에도 IBM의 Batavia, we.Trade와 같이 경쟁력·평판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들에 가입하는 추세
  - 향후 글로벌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을 사업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전망(Bain & Co)
- [평가] 글로벌 은행권이 무역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만큼 국내 은행들도 참여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
  - 무역금융이 복잡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업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효과가 커 글로벌 은행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

- [이슈] 최근 HSBC 주도로 개발된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인 ‘Voltron’이 국내 은행권에도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증가
  - R3\* 및 CryptoBlk의 합작인 ‘Voltron’은 HSBC, ING, 스탠다드차타드 등 12개 은행이 참여한 네트워크이자<sup>1</sup> 신용장 개설부터 선적서류 처리, 판매대금 결제 등 무역금융 전반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블록체인의 기반의 플랫폼

\* R3 CEV: 글로벌 은행권 및 금융사들이 참여한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분산원장 기술 Corda 보유

<sup>1</sup> 당 센터 보고서 ‘글로벌 무역금융 네트워크 구축 움직임(2018.10.26)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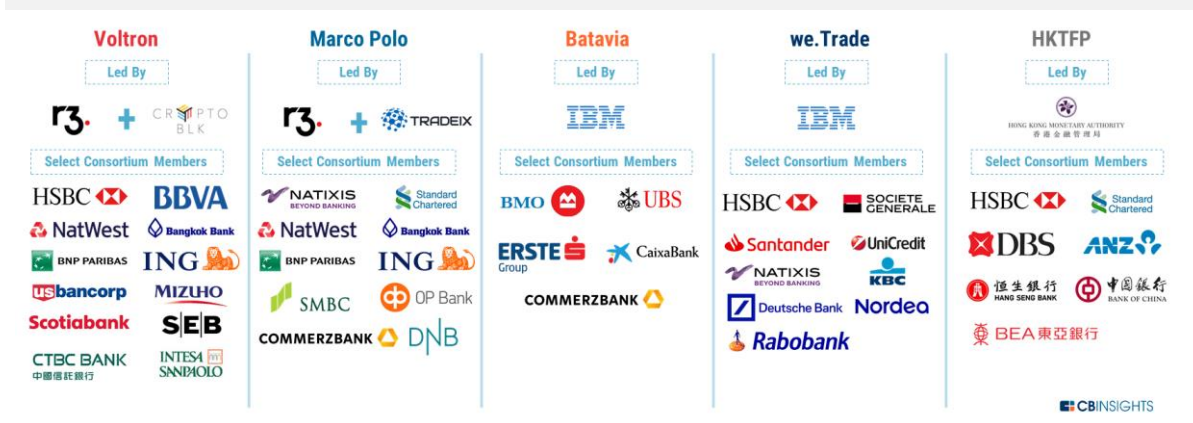
- **무역금융 거래 테스트 성공** : HSBC(싱가포르)와 ING(스위스)는 처음으로 Voltron을 통해 상업성이 있는 무역거래\*를 체결하는데 성공했으며, 이후에도 2건을 더 완료
  - \*18년 5월, 농산물 기업 Cargil의 콩을 아르헨티나에서 말레이시아로 선적 및 수출
  - 기존 서류 기반의 거래는 5~10일이 소요되는 반면, 단일 플랫폼(Corda 블록체인 기술 적용)을 통해 진행된 해당 무역거래는 24시간 내로 완료되었으며 각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은행들에게 공유됨
- **국내 은행권 동참 제안** : 3/12일, HSBC 블록체인 총괄 Joshua Kroeker는 무역금융 솔루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국내 은행권을 언급
  - 현재 다수의 글로벌 은행들이 Voltron에 참여하고 있지만 韓 은행은 부재. 한국의 무역시장 규모와 비중을 고려했을 때 국내은행들의 동참이 필요(HSBC)

**※ 무역금융(Trade Finance)이란?**

- **무역거래에서 생겨나는 Buyer와 Seller 간의 Financing gap을 해결해주는 역할**
  -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생산·선적·운송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수출업자는 대금 선수취, 수입업자는 후지불을 희망하는 mismatch가 발생. 이에 은행 등이 개입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장(L/C) 개설, 환어음 발행, 대금결제 등을 수행함으로써 자금 수요 및 공급의 gap 해결
  - 즉 정부 및 금융기관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의 지불을 보증 또는 미리 지불해주는 것이며, 이는 양측 업자의 리스크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무역 활성화에 기여
- **글로벌 상품 수출규모는 연간 약 17.7조달러에 달하며 이 중 80~90%가 무역금융에 의존(WTO statistics, 2018)**

- **[동향] 해외 대형은행들은 Voltron 을 비롯한 유망한 컨소시엄들에 각자 편입하여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며, 향후 플랫폼을 통해 △결제 및 승인절차 자동화 △처리기간 단축 △보안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**
- **협업 및 경쟁구도 형성** : 글로벌 대형은행 컨소시엄인 R3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인 CryptoBLK 및 TradeIX와 협업하여 Voltron과 Marco Polo 두 형태의 네트워크를 런칭했으며, IBM은 자체 기술을 이용해 Batavia와 we.Trade을 런칭하고 은행들을 유치
  - 해외 주요은행들은 규모 및 경쟁력을 갖춘 5여개 컨소시엄 네트워크들에 잇따라 멤버로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가세(그림1 참고)
  - 홍콩 금융관리국(HKMA)이 주도해서 설립한 ‘HKTFP(etrade-connect)’ 컨소시엄은 홍콩·싱가폴·中 권역의 구심점으로 부각(HSBC, DBS, 중국은행 등이 포함)

<그림1> 글로벌 은행권의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네트워크 현황



자료: CB Insigh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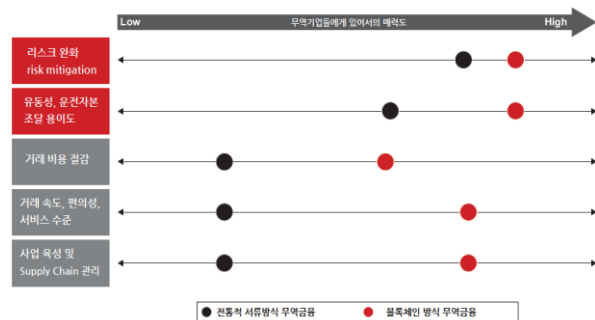
○ **블록체인 도입시 기대 효과** :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은 디지털화·자동화를 통한 효율적인(easier, faster, cheaper) 프로세스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및 보안성도 개선할 수 있어 향후 글로벌 무역시장 활성화 및 은행권의 수익 창출 효과 기대

- **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 인식** : 무역금융 및 관련 거래는 여전히 오래된(legacy) 시스템과 번거로운 수작업(manual work)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비효율적.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복잡한 거래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(Standard Chartered)

· 기존 Paper 기반 거래관행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금액의 1%에 달하며 이는 마진율이 낮은 원자재 무역 등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(HSBC)

· 또한 수출·수입업체,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업체, 정부, 물류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별도로 확인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단 하나의 서류상 오류만 생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경우가 빈번

<그림2> 블록체인 ↔ 서류기반 무역금융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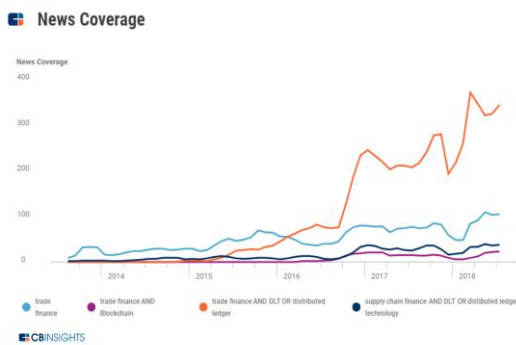


\*자료: Business Insider, WEF

- **블록체인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** : 블록체인은 복잡한 무역금융의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간소화(radically redefine) 함으로써 수입,수출업자 및 금융업체들에 매년 수십억달러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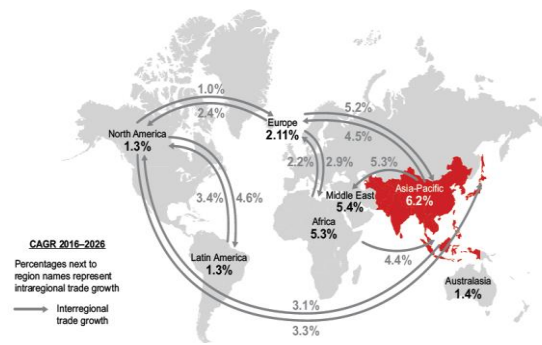
-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계약이 이뤄질 경우 신용장 자동개설 및 서류 자동화(보험가입, 통관서류, 매입서류, 대금청구 등 자동화)가 가능하고 동일한 무역정보를 동시에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
-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파이낸싱 결정에 소요되는 소요시간(processing time)을 80% 감축시킬 수 있으며, 서비스 접근가능 시간은 확대하여 지연을 최소화
- **정확성 및 보안성 증대** : 기존에는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신용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보안 비용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도 컸으나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가능
- 수출입기업, 은행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주체들이 항시 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기록을 유지함으로써(tracking records) 이중지급 및 사기, 위조 정보 생성 등의 리스크를 대폭 완화
- **교역규모 및 은행 수익기반 확대 효과** : 무역금융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무역거래 규모는 2026년까지 약 7%(\$1.1조) 증가할 수 있을 전망이며 기업, 은행 등 거래 참여주체들에도 수혜로 작용(Bain & Co)
- 현 시점에서 높은 비용과 리스크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신흥국가들의 무역거래 파이낸싱 수요까지 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 기대
- 글로벌 은행권 역시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을 사업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연간 20 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전망(기존 무역금융 관련 수익은 연간 80 억달러 수준)
- 신용장(L/C) 방식 무역금융뿐만 아니라 기업간 직접결제 방식인 Open Account (은행 의존도 低, 리스크 高) 거래수요도 흡수가 가능할 전망

<그림3>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관심도



참고: News coverage, CB Insights

<그림4> 글로벌 권역별 무역규모 증가율 전망치



자료: WTO, IMF

- [평가] 글로벌 은행권이 무역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만큼 국내 은행들도 참여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
  - 무역금융이 복잡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업무인 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효과가 크고 이 때문에 글로벌 은행들은 시장을 선점하려고 경쟁 중
  - 각 무역금융 네트워크 간의 정보공유, 신뢰구축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해 대형 은행들 및 정부 등이 ‘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’으로서 중간연결자 역할(superconnector)을 수행해나갈 필요(HSBC)
    - 디지털 무역금융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단발적, 배타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분열(fragmentation)을 지양하고, 보다 총체적,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5 혹은 hwjoo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

[붙임] 글로벌 은행권 무역금융 플랫폼 현황

은행	주요 서비스 내용
<p><b>Voltron</b> Voltron(R3)</p>	<p>목표: 모든 무역거래 과정에서의 <u>서류 전자화(digitalized documents)</u>                      주요특징: <u>신용장(L/C) 방식의 프로세스 구축</u>, 서류 검증/매칭 수행                      R3 Corda 블록체인 기술 사용, '18년 2분기 첫 거래 수행                      참여은행: HSBC, ING, SC, BNP Paribas, Bangkok Bank, CTBC, SEB 등</p>
<p><b>Marco Polo</b> Marco Polo(R3)</p>	<p>목표: <u>오픈 어카운트 방식(주고받은 대금 일시 상계) 무역금융 플랫폼 개발</u>                      주요특징: 미수금 및 미지급금 회계를 활용. 리스크 완화에 중점                      R3 Corda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TIX 무역거래 플랫폼 사용                      참여은행: Commerzbank, SMBC, SC, DNB, Natixis, <u>신한은행</u> 등</p>
<p><b>we.Trade</b> We.Trade(IBM)</p>	<p>목표: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거래 및 무역금융 프로세스 단순화                      주요특징: 유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급보증 및 송장처리에 특화. R3의 Corda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<u>Infosys Finacle</u> 사용                      참여은행: Deutsche Bank, HSBC, Nordea, Santander, Unicredit, SocGen 등</p>
<p><b>Batavia</b> Batavia(IBM)</p>	<p>목표: 국경간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오픈형 생태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주요특징: 무역거래 Arrangement 및 전자 서류 공유, 결제 및 청산 자동화에 집중. <u>Hyperledger Fabric</u> 블록체인 기술 사용                      참여은행: Bank of Montreal, CaixaBank, UBS, Erste Group 등</p>
<p><b>HKTFP</b> HKTFP</p>	<p>목표: 홍콩 기반 플랫폼으로서 무역거래 프로세스 단순화                      주요특징: 물류/유통체인 내의 <u>중간업체들(logistic providers)</u>과 연계 및 이중지급(double financing) 방지에 중점. 오픈 <u>Hyperledger Fabric</u> 사용                      참여은행: Bank of China, HSBC, Hang Seng Bank, ANZ, Bank of East Asia 등</p>

자료: CB Insights, Bain&Co